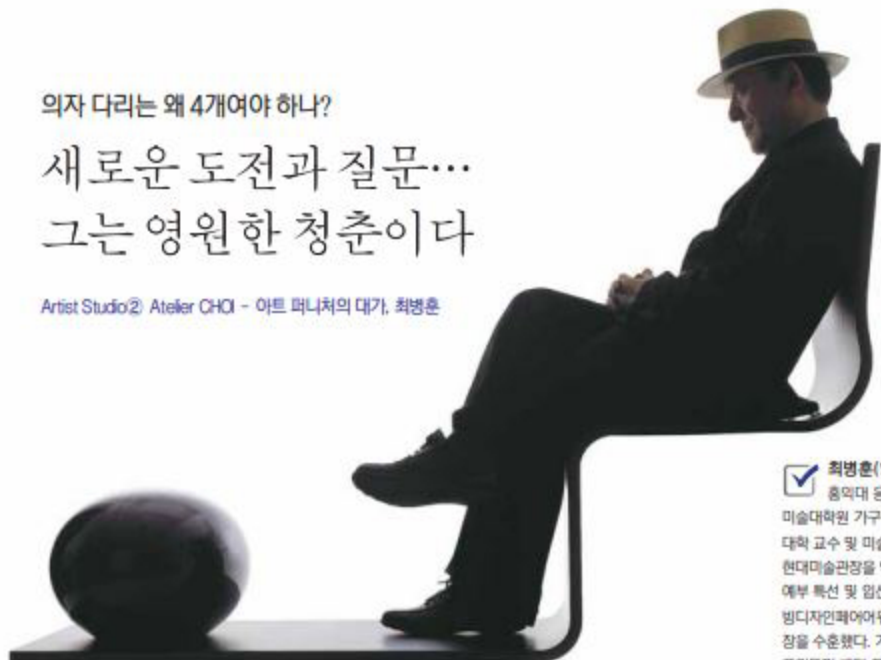


의자 다리는 왜 4개여야 하나? 새로운 도전과 질문... 그는 영원한 청춘이다

Artist Studio 2 Atelier CHOI - 아트 퍼니처의 대가, 최병훈



본인의 벤딩 의자에 앉은 최병훈 작가. 사진=작가 제공

최병훈 작가의 작업실은 파주시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Atelier CHOI'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는 1층의 제작 공간과 2층의 서재 겸 작업실로 구성된 작가의 흔적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다양한 작업 도구들과 스케치, 나무본, 미니처치 모형과 도면, 전시 포스터와 작품 사진들이 크게 인화되어 작업실 곳곳에 걸려 있어 그간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다. 서재 겸 거실에서는 나무와 돌의 조화로운 조형미를 선보이는 작가의 테이블이 손님을 맞이하고, 그 옆 한쪽에는 창을 마주 보고 놓인 임스 라운지 체어와 작가의 손때 묻은 책들이 쌓인 사색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무너뜨린 헨델 캐슬과 일본 디자이너 구라마타 시로의 의자 등 세계적인 대가들의 작품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카 이빙 자료와 작품, 도구 등이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에서 작가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유를 할까?

최병훈 작가의 대표작 수식어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이다. 한국에서 '아트 퍼니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용악대에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개설했으며, 1993년 선화랑에서의 첫 개인전 '최병훈 아트 퍼니처'전을 개최하며 이 용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했다. 이 전시가 큰 주목을 받으며 그는 국내 '아트 퍼니처'의 선두 주자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작가의 정체성, 작가의 정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일반 가구 또는 공예와 '아트 퍼니처'가 구분되는 지점이지요. 나는 항상 목공예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전공이 경쟁력을 가지고 한 시대의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작업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고, 그 답을 아트에서 찾았죠."

최병훈의 작품은 명료하고 따뜻하다. 표현과 장식이 절제되어 최소한의 단순한 구조와 자연의 재료로, 재료가 가진 고유한 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육중한 무게감과 물질감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휘한다. 이러한 절제되고 간결한 조형미는 그의 의자, 테이블, 책장, 벤치부터 대형 조각에 이르기까지 관공하는 미감으로 이는 '자연미·동양미·절제미·절대미' 등으로 평가받았다.

계단처럼 구부러진 헬판 위에 들뜨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다리 없는 의자, 유연한 'L'자형 나무판을 지지하는 한 덩어리의 돌병이로 구성된 벤딩 의자, 최소한의 구조와 재료로 제작된 의자답지 않은 의자가 최 작가를 알린 그의 첫 번째 시그니처 작품이다. 가구는 각자의 기능에 따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 작가는 이러한 가구의 일반적인 구조에 질문을 던졌다. "의자와 테이블의 다리가 꼭 4개여야 하는가?" "서랍장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그 기능을 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에 도전한 질문과 시도가 그의 시그니처 의자를 탄생시켰고, 이 의자들은 스위스 비트라디자인유지업, 홍콩의 M+, 서울공예박물관 등의 소장품이 되며 역사적 작품으로 등극했다.

최 작가의 작품은 미술관뿐 아니라 거리, 호텔, 박물관 로비에서도 만날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의 벤치 시리즈, 포시즌 호텔 입구에 설치한 대형 설치물, 서울공예박물관의 안내 데스크와 벤치 등 여러 일상의 공간에서 최 작가의 작품을 접한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예술성과 실용성의 결합이라는 아트 퍼니처의 속성이 화이트 큐브 밖, 일상의 공간에서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작가는 천연재료인 '나무'와 '돌'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흑단, 풀푸레나무, 월넛, 단

목공예 한계 넘어 작가 정체성 담아
표현·장식 절제된 단순한 구조
돌·나무 등 자연의 재료로 작업
자연미·동양미·절제미·절대미 평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미술관에 설치된 작품 'Scholar's Way(선비의 길)'과 최병훈 작가. 사진=작가 제공

풍, 호두나무와 자연석, 대리석, 용암석, 현무암 등을 그 용도와 형태에 따라 사용하며, 질감과 색깔의 조화와 대조를 통해 그 물성을 극대화해 드러낸다.

"나무는 천연 소재로 따뜻하고 포근한 속성과 재질이 있어서 기본 재료로 삼았는데, 나무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하중, 무게중심 등 가구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90년대에 금속, 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다듬어서 매끈하다면 자연석은 원초적인 거친 맛이 있는데, 부드러운 나무의 속성에서 오는 감성과 거친 자연의 원시적인 맛이 서로 대비를 이루죠.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소재 실험을 하면서 그 소재만이 가진 형태들을 발견했어요."

최근 최 작가는 인도네시아산 용암석인 바잘트를 사용하고 있다. 바잘트는 화산폭

✓ 최병훈(1952) 작가는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가구디자인 전공 졸업,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 및 미술대학 학장, 홍익대 박물관장과 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 특선 및 입선, 코리아디자인어워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육군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기나아트센터, 조현갤러리, 뉴욕 프리드먼 본드 등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휴스턴미술관, M+, 비트라디자인유지업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받 이후 마그넷이 수억 년에 걸쳐 굳어지고 그 위에 억겁의 시간이 지나며 흙이 쌓여 표면은 거친 황토색이지만 내부는 검은색의 용암석으로, 연마하면 반들반들한 표면을 연출할 수 있다. 그는 재료의 표피와 내부의 대조적인 질감과 색조를 동시에 드러내며 입말위치의 '선'의 조형을 선보이고 있다. 돌은 억겁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작품에는 재료가 형성된 긴 시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다. 수억 년 전에 형성된 재료가 오늘날 작가를 만나 새로운 형태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공을 넘어서는 자연 재료의 매력이라고 한다.

새로운 재료의 선택은 대형 야외 커미션 작업으로 이어지며 최 작가의 작품세계는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휴스턴미술관 신관의 커미션 프로젝트에 올라 퍼 엘리야스, 아이 웨이웨이 등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함께 참여한 '잠소 맞춤형 커미션 작품'과 중동 지역의 대형 커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작가는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리치드 세라와 에니시 쿠퍼의 작품에서 영감과 자극을 동시에 받는다는 작가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한다. 지치지 않는 청년의 마음을 지닌 작가는 나이 들지 않는 영영한 청춘이다.

필자 심재은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사업본부장, 서울국제미술다메르스트리뷰 전시장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각예술 전문 매체 월간미술의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다.